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28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12.8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전정민 전도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앞 에 나-앞드 려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 대림절다같이

인도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성도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인도자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성도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인도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성도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인도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성도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인도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성도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참회기도.....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성도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마태복음 1:18-25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전정민 전도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8-19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20-23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24-25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마 1:18-25)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묵상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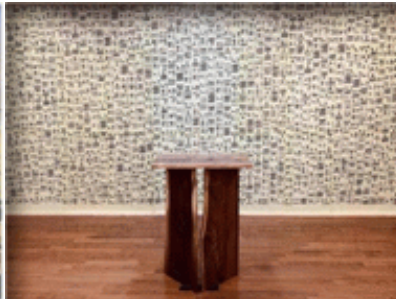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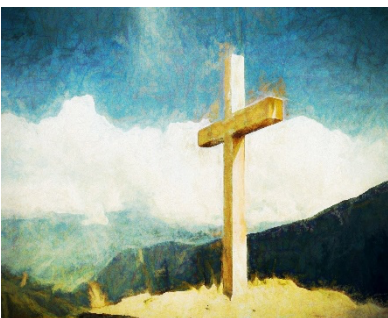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엄령 사태에 부쳐

저는 지금 로마,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중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00경찰서 신우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직경찰분들과 신우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며칠전 있었던 계엄령 사태로 인해 이곳에서도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이곳에 고위급 경찰간부가 함께 하고 있어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당장 복귀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장난같은 것인가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실시간 속보 상황으로 긴밀하게 진행되는 실제 계엄상황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한국은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들은 때는 한 낮이었고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경찰 한 분이 목사인 제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사님! 이 상황은 불의한 상황이고,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위해 단호하게 싸워야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 선지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처음에 이번 계엄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지금까지 조사된바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이들의 계획이 몇몇 사건에 의해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국회를 접수하고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억류하였다면 오늘의 이 평안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감사함을 고백할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을 풀수 있는 상황은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가 그 기능을 할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민들의 피와 희생밖에는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준수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긴 대통령과, 명확히 시비가 가려지는 상황에도 정치적 이익 계산으로 이 상황을 감싸는 정부 여당은 명확히 잘못되었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잡고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엄상황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을 악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고 끌려가서도 안되지만, 약자들이 희생되고 악이 판치는 그래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바른 판단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나누어 제대로 분별하고 바로 서 있는 우리 길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에서 담임목사 이길주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코칭 학교

오늘 오후에 이의용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감사학교 두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대림절 묵상집 배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간입니다. 주보 옆에 대림절 묵상지가 놓여 있습니다. 개인당 1부씩 가져가셔서 묵상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섬김

이춘원 집사, 정지혜 집사.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김상진 전도사님 튀르키예 사역 복귀

내일 다시 튀르키예로 복귀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건명 집사님 신대원입학 시험

이번주 목요일 신학대학원 입학고사가 치러집니다.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건명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주십시오.

성경통독 종료, 요한복음 시작

마가복음 성경통독이 끝났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성경통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더욱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관련

성탄절예배 - 12월22일 주일 (25일 성탄절에는 따로 모임이 없습니다.)
성탄절예배 행사 - 찬양이 있는 성탄 (교회학교 성탄발표/ 특순/ 교인전체 합창)

연말 기도 특강

일시: 12월29일 주일 오후1:30 / 강사: 김정인 권사

담임목사 사역 중

12.2.월~13.토. 서초경찰선교회 로마,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 참여한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다치지 않고 복된 시간되도록 기도해주세요.